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목사

“누가복음 6장 12절~23절 강해 설교”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23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543장(새찬송가 491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3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고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님은 종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符合)하게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매우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마음씀씀이나 행실이 세속적이고 악하면 기도의 기본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에 속합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과 인성을 가지시고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감안하여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이라”(빌 2:6-8)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중에 어느덧 동녘이 흰하게 밝아오는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집중하여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많이 지났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체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이와 풍요를 더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침에 제자들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계획하거나 진행하려고 할 때 먼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열둘을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사도(아

포스톨로스) 라는 낱말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어 파송된 자’를 의미합니다. 헬라어에서는 ‘황제의 명령을 받고 파송되는 특명전권대사’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신 일꾼’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사도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의지와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사도로 택함 받은 제자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유명인사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는 세리 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큰일을 행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교만하게 되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열두 제자들과는 다른 상황에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회심하게 하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가문과 출신과 신분이 뛰어나고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을 택하여 쓰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를 완전히 깨트리고 낮추셨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가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하였으며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토로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6-29)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외하는 자에게 영생과 천국까지 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자는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낮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평지’는 여전히 산 위이지만 넓고 평평한 장소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여덟 가지 복에 대하여 말씀하신 기록이 있는데 ‘산’으로 번역된 낱말과 같은 의미로 구약성경에 사용된 ‘산’이라는 낱말은 산 위의 넓고 평평한 지역도 의미합니다. 그 평지에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온 유

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더러운 영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들도 고쳐주셨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0절에서 49절까지는 마태복음 5장~7장에 기록된 산상 보훈(수훈)과 상당 부분 중복되나 분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사한 설교를 여러 번 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는 유사한 교훈들을 모아서 기록하였고, 누가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 가르침이 있었던 때와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분산하여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복 있는 자’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에는 복 있는 자를 세 부류로 지적하셨습니다. ① 가난한 자 ② 주린 자 ③ 인자를 인하여 미움 받고 배척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수긍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해하려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전 2:13)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가난한 자와 주린 자’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심한 가난과 결핍이 사람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의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절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라는 말씀을 살펴보고겠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원하거나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기이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므로 혹 예외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유한 생활과 신령한 생활은 상반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수도자가 됩니다. 전혀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경제적 빈곤에 처한 신자에게는 교회중심의 생활이 가장 즐겁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신령한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상적 일, 사교활동, 여행 등으로 즐길 일들이 많으면 교회생활을 등한히 하기 쉽습니다. 교회생활을 소홀히 하면 신앙의 열기도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예배, 봉사활동, 기도, 전도 등을 등한시(等閑視)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활의 여유가 신앙생활에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가 바빠서 허둥대는 상태에서는 교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배시간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복음전파

를 위해 헌금과 헌물로 헌신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내기도 쉬워집니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선교 활동과 경제적인 여유는 불가분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은 곧 심령의 가난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인 궁핍이나 육신적인 결핍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데 관련이 있음을 말해 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라는 말씀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는 말씀을 연계하여 살펴해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달리 말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구원 얻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가난한 자의 근원적인 의미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가난을 전혀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보아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여 보면 그 사람이 가진 만큼 그 심령이 굳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장 곤란이 없을 뿐 아니라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형편에 놓이게 되면 비교적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것에 관하여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뿐 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리고는 십계명의 대인관계 계명들을 열거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께 말하기를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완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어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큰 부자로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매우 놀라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하니 예수께서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 19:16~26)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기가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심령은 아집과 자만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심령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사용된 헬라어에는 가난을 의미하는 낱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페네스’와 ‘프토코스’입니다. ‘페네스’는 오직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근근이 유지하는 사람의 가난을 말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낱말은 ‘프토코스’인데 이는 절대적인 극빈상태를 의미합니다. 비천하고 무력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의 가난을 말합니다.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관하여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죄인이며 인간의 방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인정

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기 양심으로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하여 죄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죄를 더 범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 이 기쁜 소식에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자신이 가지거나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과분하게 생각합니다. 그 무엇도 그에게는 예사롭거나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문에 ‘가난한 자’라고 번역된 원어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빈곤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난하기가 물로 씻은 듯이 아무것도 없는 적빈여세(赤貧如洗)의 빈털터리에게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아주 적은 것이라도 큰 보탬이 됩니다. 마치 자신이 적빈여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대한다면 매우 반갑고 소중하며 고맙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궁리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 즐겁게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의 내용을 깊이 새기어 맛보므로 그의 마음속에서 감동과 기쁨의 샘이 항상 솟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신기하게 여기고 깊이 고마움을 느낍니다. 원래 자신의 것이 없고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소재(素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없는 것보다 가진 것을 헤아리며 만족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리며 감사하게 여기고 만족합니다.

옛날 어떤 임금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름난 의사를 다 불러 처방을 받았으나 낫지 아니했습니다. 어느 날 가장 용하다는 의사가 임금을 진찰한 후에 처방하기를 방법은 딱 하나가 있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속옷을 얻어 입으면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수소문하며 찾아다녔습니다.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 보았으나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망하고 돌아오던 한 신하가 어느 산골 오두막집에서 정겹게 살고 있는 농사꾼 부부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부부는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신하는 “드디어 찾았구나.”라고 좋아하며 그 농사꾼 부부에게 사정 이야기를 한 후에 값은 원하는 대로 줄 터이니 속옷을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부부는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 가난해서 여태까지 속옷을 입어 본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행복은 왕궁에 있지 않고 가난한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에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깃들 자리가 마련됩니다. 마음을 비운 만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채워집니다. 감격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소유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에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도아래 애굽을 떠나 광야를 행진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식량과 물을 해결할 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이냐.”라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양식이 공급되니 당연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 불편

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벌로 다수가 광야에서 망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의 심령이 늘 가난하였다면 매일 눈물겹게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했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심령에 탐욕이 가득 찬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삽니다. 많이 가져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불만이 가득 잡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지옥같이 살아갑니다. 반면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 심령천국이 되어있는 성도는 무엇을 구하여도 지나치거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것을 과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에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일생을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와 상급을 사모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만하거나 태만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말세 교회의 상태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계 3:17)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랜 기독교 문화와 전통을 이어받았다. 의식과 제도와 신학을 가졌다. 우리는 부자다.” 하면서 예배와 전도를 소홀히 하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나는 평생토록 교회 다녔다. 각종 봉사도 다 해보았다. 성경도 많이 읽었고 설교도 무수하게 들었다. 이제는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신자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좃아가노라”**(빌 3:13,14) 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8) 하였습니다.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계속 주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사모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신앙자세입니다. 자고(自高)하고 자만하는 자에게는 성장과 발전이 그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복이 그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일생 하나님을 앙망하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복 주심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앙망하는 자의 심령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심령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하나님의 나라)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세상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천국은 성도들이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실재하는 초소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세상에 태어난 것과 세상에서 살았던 것이 행운 중의 행운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온갖 즐거움을 누리며 호의호식하고 살았다고 하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태어난 날과 한평생이 다 저주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천국과 지옥이 어떠한 곳인가를 알게 된다면 “어찌하든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결코 무심하게 듣고 지나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천국)가 너희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진실로 복이 있습니다.